



**계속되는 코로나 선별검사**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으로 집계된 6일 대구 중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전북도, 축산물 부정 유통 차단 특별점검

### 합동점검반 구성

전북도가 야외활동이 늘면서 축산물 수요가 커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시군과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5만 81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특별반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군 및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는 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 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164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갖

는다.

합동점검반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행위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냉장·냉동 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근 3년간 미점검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으로 최소화했다. 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영업자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행정기관이나 부정축산물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 광주시, 재활용 가능 보도블록 무상 제공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상무지구에서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시 조성사업 현장에서 철거하는 보도블록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해 보도블록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나 단체에 무상 제공키로 했다.

시는 우선, 시범적으로 보도블록 1만장을 확보해 7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아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신청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 1인당 1회,

최대 500장, 면적은 10㎡로 제한했다.

보도블록이 필요한 시민은 종합건설본부 토목2과 환경시설팀으로 전화 신청 후 신청서를 받아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시민여부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으며, 블록 수령 시 운반 및 하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양은열 토목부장은 “필요한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폐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어 1석3조”라고 밝혔다.

/광주=김태수 기자

## 최형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챌린지

(담양군수)

### 철회 축구 캠페인

최형식 담양군수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챌린지는 지난 4월13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오염수 125만톤을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이후 일본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중인 캠페인이다.

최 군수는 SNS 계정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변국가인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파괴와 국민건강



최형식 담양군수

을 해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로부터 지목을 받아 동참한 최 군수는 다음 릴레이 주자로 구충곤 화순군수를 지목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 경북도청,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백신 등 앵커시설 유치공간 조성

앵커시설 유치공간 ‘화이트존’ 마련  
특화계획·디자인특화지구 조성  
신도시 활성화 위한 체육시설 설치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계획이 크게 바뀐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앞으로 신도시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바이오·백신산업 등의 앵커시설을 유치할 공간인 ‘화이트존’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호민지 주변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계획 및 디자인특화지구도 조성된다.

맑은누리파크(쓰레기소각시설)에는 주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이 설치된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을 활성화하고자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경북도는 지난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형동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도청이



지난 4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신도시 건설 사업 개발계획 변경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북도

전신도시 건설위원들과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 개발계획 변경 설명회를 가졌다.

도청 신도시는 2016년 1단계 사업 완료 후 경북도청 및 도의회, 교육청 등이 이곳으로 이전했으며 현재 상주인구 2만이 넘는 북부권 새로운 거점도시가 됐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6월 현

재 47%의 공정률로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은 2027년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제 도청신도시”라며 “앞으로도 안동·예천과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 더 커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 전남도, 양식장 부표 100% 친환경으로 대체

전남해역 5400만개 스티로폼 부표  
278억 들어 친환경 부표 400만 개

전남도가 파도 등에 쉽게 파손돼 해양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오는 2024년까지 100% 친환경 부표로 대체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해역에는 김, 미역 등 양식장 9만9855ha에서 5400만 개 가량의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고 있다.

연안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서져 미세한 알갱이가 발생하는 등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도에서 공급한 친환경 부표는 700만 개로 전체 부표 사용량의 13% 정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66억원 늘어난



재활용 하지 못해 폐기할 스티로폼.

/뉴시스

2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 부표 400만 개를 보급한다.

김양식 시설이 집중된 해남과 진도 2개 해역 2만5000ha를 친환경 부표 100% 보급 중점 해역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은 친환경 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친환경 부표를

구입하면 전체 비용 중 70%(중앙정부 35%, 지자체 35%)를 보조하므로 어업인 자부담은 30% 규모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pth7285@

## 경북대 박물관 ‘신라, 유라시아로 나아가다’ 개최

개교 75주년 기념 특별전

경북대학교 박물관은 오는 11월8일까지 개교 75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신라, 유라시아로 나아가다’를 개최한다.

6일 경북대에 따르면 올해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지원으로 열린 이번 특별전은 경북대 실�크로드조사연구센터의 학술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크로드 성장한 신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사회에 대한 방

향 제시를 위해 기획됐다.

특별전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실�크로드 문명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 및 복식(복원품) 100여점을 포함해 박천수 박물관장이 지난 10여년 간 수집한 사진과 영상 등을 선보인다.

1부 초원을 가로질러서는 유라시아 북방초원의 대표 교역품인 로마 유리기와 신라 황금 문화의 원류를 찾을 수 있는 카자흐스탄 이식고분군에서 출토된 황금인간(복원품)을 볼 수 있다. 황금인간 복원품은 고대 기술 복원

에 의거해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협업 제작한 것이다.

2부 오아시스를 지나서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와 금속공예품을 소개하며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건축 조각품 등이 전시된다.

3부 바다를 건너서에서는 지중해에서 흥해와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과 태평양에 이르는 바닷길을 따라 유통된 동방의 유리기와 도기, 직물, 향료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실�크로드 가상 답사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경북=김귀열 기자